조계종, 민간 최초 구호 시작

조계종 구호팀 선발대… 추가 피해 우려 불구 센다이시 진입, 한일 공동 49재 등 논의

조계종이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에 구호팀 선발진을 3월 15일 급파했다. 사회국장 묘장 스님을 팀장으로 하는 조계종 긴급 구호활동팀 선발진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조계종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호 활동 파악에 나선다.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폭발 위험과 잇따른 여진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선발진은 18일 오전 센다이시로 진입했다. 센다이시 주민들은 계속 안전한 곳을 찾아 도시를 떠나고 있고, 취재 기자들마저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 3월 15일 –
위험한 상황 불구 일본행 비행기 탑승

조계종 긴급 구호팀 선발진은 팀장을 맡고 있는 사회국장 묘장 스님 이외에 이용권 서호노인복지관 관장, 이운희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과장, 권성행 총무원 사회부 주임, 유정석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자문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스리랑카, 파키스탄, 아이티 대지진 등 해외긴급재난구호활동 경험이 많고 통역 및 현지 가이드가 가능하다.

조계종 긴급 구호팀 선발진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저녁 6시 50분 비행기로 일본으로 출국한 선발진은 4박 5일간 피해지역인 이바라키현 현장조사를 통해 현지상황을 파악하고, 필요물품과 의료지원, 인력투입 등 효과적인 본진 파견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 3월 16일 – 일본 중앙재해대책본부 방문

16일 오전 선발진은 두 팀으로 나누어 본격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일본 후생성 산하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하고, 주일한국대사관 구호단체회의에 참석해 구호활동을 위한 주의사항을 전달받았다.

오후에는 이바카리현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 3월 17일 – 위험지역 센다이시로 출발

일본에서도 센다이시는 원전 폭발과 대규모 쓰나미, 폭설, 여진 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그만큼 추가 위험도 높지만 선발진은 이런 위험 속에서도 17일 오전 센다이시를 향해 출발했다. 당초 차량 렌트를 통해 이동할 계획이었으나 여진과 방사능에 대한 공포로 현지 안내인과 운전기사가 동행을 거부하면서 도쿄에서 기차를 이용해 니카타현으로 이동 후 다시 6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센다이시로 진입하기로 했다.

조계종 구호팀 선발진이 발대식에서 일본 희생자를 위한 기도를 올리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선발진은 최대 피해지역의 현지 조사가 있어야 제대로 된 구호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센다이시 진입을 결정했다.

#3월 18일 –
민간단체 최초로 구호활동 시작

선발진 5명은 18일 오전 최대 피해지역인 센다이시에서의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선발진은 휴대한 모든 식료품과 방한물품을 이재민들에게 모두 전달했다. 오후에는 재난대책본부를 찾아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49재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기범 기자

“사람 미워할 순 없다” 정신대 할머니들 자비

사진제공=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 역사 이래 최대의 피해로 꼽히는 이번 대지진에 대해 불교계가 애도문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특히 3월 16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마련한 수요 집회에 참석한 나눔의 집 등 정신대 할머니들조차 일본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3월 16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 집회는 평소와 달리 애도의 뜻을 담은 침묵시위로 진행됐다. 이 날 길원옥 할머니는 “죄는 밉지만 사람은 밉지 않다. 일본인들이 힘을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진각종 등 각 종단과 단체들도 애도논평을 발표했다. 조동섭 · 박기범 기자

“일본을 돕자” 불교계 한마음·한 뜻

아름다운 동행 등 모금 나서

조계종 총무원이 3월 11일 긴급 애도문 발표에 이어 자원봉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조계사(주지 토진)는 15일 일본 지진 · 해일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함을 설치하고 모금운동에 들어갔다.

조계사는 이날 모금에 앞서 지진 · 해일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타종과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모금운동에는 출가 열반절을 맞아 ‘문화결사’를 주제로 열린 신도 대중공사에서 법문한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과 포교부장 계성 스님, 조계사 부주지 도문 스님 등 30여 스님을 시작으로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일본 지진 피해자 돕기 모금운동으로 모인 성금은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피해지역에 전달된다.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은 네이버 해피빈과 각 사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은 “고통은 나누면 덜해진다”며 “일본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한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농협: 301-0029-6115-71 예금주: 아름다운동행

로터스 월드도 일본 대지진 피해 구호를 위한 모금 활동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로터스 월드는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강력한 대진진과 쓰나미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일본에 긴급 구호 모금을 통해 구호물자 및 기금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불자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02)725-4277 신한은행: 100 021 108016 예금주: 로터스월드

불자들이 조계사에 마련된 모금함에 성금을 넣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혜정)도 대한불교진각종과 연대한 모금 활동을 펼친다고 17일 밝혔다. 재단측은 성금전액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피해자 구호를 위한 성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다. (02)942-0144 농협: 024-01-040251 예금주: 진각복지재단

한편, 동국대(김희옥 총장)는 대학 최초로 일본 대지진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김희옥 총장과 학생들은 16일 동국대 교정 등에서 무기한으로 모금을 시작했다.

지관 스님도 18일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1000만원을 전달했으며 각 사찰의 지원금 전달이 이어질 예정이다.

박기범 · 노덕현 기자

특별기고–일본 도쿄에서

아톰, 마징가 제트, 건담은 어디갔나요

여진 그치지 않아 여전히 위험 상태
과학기술맹신주의 돌아봐야 할 때

지금 일본의 모든 종교단체들과 TV, 사회단체들 모두가 이 참담한 재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대적인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105명의 119구조대를 시작으로 독일, 뉴질랜드, 중국 등 세계의 도처에서 많은 구조단들이 속속 도착하여 구조활동을 전개하려 하고 있고,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하여 한국정부와 수많은 사회단체들도 대대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 대해 미운감정을 갖고 있던 나라들도 마음을 바꾸어 모두 인도적인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재난구호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행정적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오로지 핵발전소 사고의 해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호단들이 본격적인 재난복구활동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파괴된 도시에서 그나마 살아있을 가능성 있는 사람들의 인명구호 활동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만 치중할 뿐입니다.

후쿠시마의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로 인해 구호활동도 재난복구활동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호기, 1호기에 이어 사용 후 핵연료를 넣는 4호기가 폭발했습니다. 그리하여 전국민을 상대로 하여 전후 최초로 계획정전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정전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에는 신호등도 들어오지 않아 경찰들이 교통정리를 합니다. 그동안 2~3분에 한번씩 다니는 동경의 중요 전철인 야마노테선도 30분에 한번씩 밖에 안다닙니다. 곳곳에 전철 운행이 되지 않아 출근도 통학도 어렵고 산업활동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바로 원자력 발전사고로 인한 방사능피해입니다.

정부의 통제능력을 제발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은 아직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천황이 재난의 피해자들을 위한 애도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핵발전소사고에 대한 설명과 방사능에 노출되었을 때를 대비한 국민들의 대응수칙을 친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과 세계를 구할 우주소년 아톰, 철인 28호, 마징가제트, 건담은 어디갔나요? 과학기술에 관한한 세계적인 첨단을 달리는 나라가 이렇게 자연재해에 왜 이리 무력할까요? 오늘날 문명 발전의 토대가 된 전력생산을 위해 만들어진 일본의 50여기 핵발전소는 충분히 관리통제가 가능하다고 호언장담을 해왔던 원자력산업이었습니다. 스리마일섬 사건과 체르노빌사건으로 숨죽였던 그들이 온난화 위기가 닥치자 과거의 모든 사건사고를 잊으라며 그것을 녹색기술 청정기술로 둔갑시켜 기세를 부리던 것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거짓입니다. 일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과학기술로 자연을 제압할 수 있다는 인간생각은 큰 오만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욱이 거대한 과학기술을 철석같이 신뢰하며 만드는 우리나라의 4대강개발은 오만한 인간의 자연개조의 상징이 될 것임을 언제쯤 깨우칠 수 있을까요

일본은 과학기술은 지금까지 지진이라는 자연적 위기에는 잘 대응해왔습니다. 그러나 쓰나미라는 또 하나의 자연의 힘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핵발전소사고에 대해서는 더욱 더 속수무책입니다. 이글을 쓰고 있는 지금 16일 밤 10시 45분, 동경의 동쪽 치바현에서 발생한 5.3의 지진으로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흔들리는 것은 원자력발전산업이며 과학기술맹신주의입니다.

하루가 1년 같은 지금이지만 이 재난 속에도 결국 우뚝 일어날 일본국민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함께 극복할 세계의 선한 양심들의 노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습니다. 저를 아끼는 많은 분들로 부터 빨리 일본을 떠나라는 전화를 받고 있지만, 이 위기를 박차고 일어나는 세계사적 현장을 대면하며 함께하는 기회를 놓칠수 없지요. 이제 일본 국민들에게 즐겨 사용하는 이 말을 그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일본 국민들이여, 간밧데 구다사이 (かんばってください 끝까지 힘써주십시오) 센다이 갈 준비하며. 3월 16일 밤 11시

유정길 (에코붓다 공동대표)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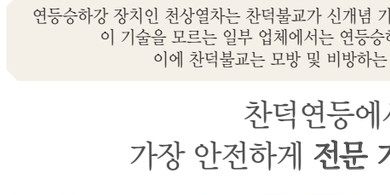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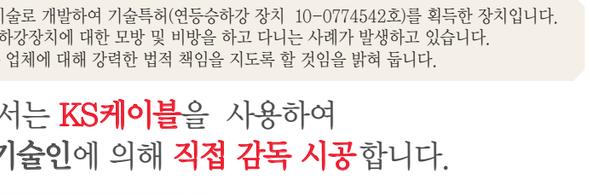
윤장대 인등

용학사 목련관 위패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연등승하강 장치인 천상열차는 찬덕불교가 신개념 기술로 개발하여 기술특허(연등승하강 장치 10-0774542호)를 획득한 장치입니다.
이 기술을 모르는 일부 업체에서는 연등승하강장치에 대한 모방 및 비방을 하고 다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찬덕불교는 모방 및 비방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